

SK에너지, 석유시장 패권 “흔들”

석유공사, 2009년 판매량 4% 감소 ... 2위 GS칼텍스와 격차 줄어

석유제품 시장점유율 1위인 SK에너지는 2009년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석유공사의 <2009년 정유사 석유 수급동향 분석>에 따르면, 2009년 SK에너지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대비 4.0% 감소해 2억194만3000배럴에 그쳤다. 휘발유, 경유, 항공유 판매는 증가했지만 등유와 병커C유, 나프타(Naphtha), LPG(액화석유가스) 판매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.

이에 따라 SK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은 27.1%로 2.2%p 떨어져 2위인 GS칼텍스(24.6%)와의 격차가 2.5%p까지 좁혀졌다.

GS칼텍스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0.2% 증가한 1억9131만9000배럴로 집계됐고, 현대오일뱅크는 2.0% 감소한 8863만8000배럴로 나타났다.

한편, 2009년 원유 수입은 8억3898만5000배럴로 3.4% 감소했고, 석유 소비는 7억7848만7000배럴로 2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휘발유(4.7%), 항공유(4.9%), 나프타(3.6%) 소비는 증가했으나 등유(-6.0%), 경유(-1.6%), 병커C유(-0.9%)는 감소했다.

산업부문 소비가 2008년보다 3.3% 늘어나 4억3493만8000배럴을 기록했고, 수송부문은 2008년과 비슷한 2억5835만6000배럴을 유지했다. 발전부문 소비는 38.4% 급증한 2181만3000배럴로 집계된 반면, 가정·상업부문은 5.2% 감소한 5190만1000배럴에 그쳤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28>